

↓ 코스피 2409.22 (-5.74)	↑ 코스닥 827.69 (+3.58)
↑ 금리 (연이자율) 3.220 (+0.060)	↑ 환율 (원/달러) 1301.50 (+7.20)



힌남노 씻어낸 '135일의 기적' (제11호 태풍) 직원도 철강도 더 단단해 졌다

르포
침수피해 극복, 포스코 포항제철소

태풍에 냉천 범람으로 공장 침수 밀려들어온 물만 620만톤 달해 바닷물과 빨·모래도 흘러들어 물 퍼내는데만 한 달 가량 소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135일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냉천이 범람해 물에 잠겼던 아픔은 완벽하게 지우고 완전 재가동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열연 공장 지하를 방문할 당시 코를 찌르는 물비린내와 기름 냄새 등 특유의 악취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1000도가 넘는 쇠물을 뽑아내는 출선 작업과 이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직원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포항제철소가 이처럼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포스코그룹 임직원과 민·관·군을 포함한 140만명의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포스코는 성공적인 침수 피해 극복을 통해 얻어진 더욱 단단해진 철강 본원 경쟁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 체제 구축 등에 집중하고 있다.

◆140만명이 이뤄낸 135일의 기적

태풍 힌남노 피해로 공장 가동을 멈췄던 포항제철소가 완벽하게 가동된 건 지난 1월 20일이다. 냉천 범람으로 침수된 공장을 마주했던 직원들은 135일간의 복구 과정을 기적으로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다.

최주한 포항제철소 제강부 2제강공장 공장장은 "포항제철소가 침수된 당일 아침은 재난영화의 시작처럼 매우 평온했다. 포항도 여명이 밝아올거라 생각하는 아침이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공장 곳곳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공장이 침수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제철소로 밀려 들어온 물은 620만톤에 달했다.

임직원, 민·관·군 140만명 투입 직원 세대간 벽 허물고 소통 기회 협력사와 묵은 오해도 많이 해소 정상가동 후 전우에 같은 것 생겨

포항제철소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공장은 2열연공장이다. 유압류 공급 장치가 있는 지하 8m 높이의 이곳은 길이 420m, 폭 12m의 공간이 삽시간에 물로 채워졌다. 가장 큰 문제는 바닷물과 함께 밀려 들어온 빨과 모래는 기계 속으로 들어가 피해는 갈수록 수습을 정도로 확산됐다. 당시 공장에 밀려온 물을 퍼내는데

만 한 달 가량 소요됐을 정도다.

2열연공장이 재가동 된건 약 100일의 시간이 흐른다. 이현철 열연부 2열연공장 파트장은 "공장이 복구된 지 99일째가 됐는데 다시 가동하기 시작한 첫날 압연이 무사히 끝난 걸 보면서 너무 기뻐 만세를 불르고 하루종일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포항제철소가 공장 가동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지만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과 민·관·군의 지원 덕분이다. 수해 복구에 투입된 인원은 140만명을 넘어섰으며 단 한 건의 중대 재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지원도 한 몫했다. 또 냉천 범람 직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4만3000개에 달하는 모터를 빠르게 복구해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모래와 빨이 모터속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135일 동안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포항제철소 임직원들은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끈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여의도 면적 세배에 달하는 포항제철소에 근무하면 다른 부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며 같은 팀원이라도 교대 근무를 하면 서로 대면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위)포항제철소 2열연공장이 힌남노 침수 피해 복구 이후 정상가동하고 있다. (아래)스마트 고로인 포항제철소 제 2고로에서 쇠물이 나오고 있다.

정성준 선재부 3선재공장은 "포항제철소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도 같이 일하고 있는데 복구작업을 하면서 서로 묵었던 오해도 많이 풀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 같다"며 "정상가동 후 직원들과 소통이 더 잘 되고 있고 협조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주려고 하는 전우에 같은 것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날 가장 먼저 찾은 2고로에서는 빨간 용선이 끊고 있었고 정리된 루트를 따라 쇠물이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美 IRA 세부지침 앞두고 북미 투자 늘리는 K-배터리

美 백악관, 대미투자사례 8건 소개
LG에너지, 애리조나주 공장 재추진
7.2조 들여 최대 독립형 단지 건설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든 원통형전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세부 지침'이 발표가 임박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IRA 성과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사들의 투자 규모도 지침 발표에 맞춰 더욱 커지고 있다. 북미 배터리 시장을 겨냥하며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세력을 넓혀나간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IRA에 따라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이 각각 애리조나주와 조지아주에 제조 공장을 확장해 수백개의 양질의 일자리

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 8건을 소개했다. 해당 자료의 이름은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행정부의 미국 투자, 지역 사회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제목의 홍보자료로,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투자와 한화큐셀 투자 사례가 소개됐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약 9개월여간의 재검토 끝에 미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총

7조2000억원을 들여 27GWh(기가와트시) 규모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과 16GWh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앞서 계획했던 투자규모가 1조700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생산능력만 보면 LG에너지솔루션 단독 공장 기준 최대 규모이며, 투자 규모는 국내 배터리 업체 기준 최대이다.

백악관은 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프로젝트가) 미국 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미에서 가장 큰 독립형 배터리 단지가 될 수 있다"며 "이 기업은 지난해 의회에서 통과된 IRA의 연방 세금 공제 덕분에 수요가 부분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투자 규모를 키운 배경에는 이번 주 발표될 IRA 세부지침이 존재한다.

미 재무부가 이미 지난해 12월 29일 백서를 통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세부지침에서도 전기차 조립과 관련해서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이 바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 등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또한 한국산 양극재·음극재와 E

U와 일본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요건들이 세부지침을 통해 인정되고 구체화할 경우 국내 배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가에 따르면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올해 약 67% 성장할 예정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전기차 판매 대수는 작년 대비 25%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온 상태다.

투자가속화를 비롯해 글로벌 완성차 회사와 국내 배터리 회사가 손을 잡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SK온은 포드, 현대차 등과 함께 미국 테네시·켄터키·조지아에서 배터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미 북핵수석대표, 北 SRBM 도발에 "압도적 억제 능력 제고"
▲ 법사위 공방... 여 "국민 호도 우려" v s야 "시행령 바로잡아야" (사진 뉴스스)

▲ 국민의힘 "위증교사의혹까지... '이재명판 더글로리'"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 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최일수·토론자수 협의 시작
▲ 민주, 北도발 규탄... "尹정부, 외교 노력해야" (사진 뉴스스)